

## HEADLINE NEWS

### 철도교통과 연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슈투트가르트 21」 추진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市는 최근 철도교통과 연계한 도시 개발 계획인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市의 철도교통 현대화를 목표로 기존 선로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철도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市중심지의 모든 지상 철도시설들이 철거될 계획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약 100ha의 공간은 도시개발을 위해 활용된다. 市는 이 부지를 판매한 수익금을 새로운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市의 중앙역 및 市중심지의 선로 제거와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연방정부의 교통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독일철도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역의 선로 현대화는 고속철도 진입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근·장거리의 선로 연결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舊) 선로의 철거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부지는 주변의 주택 및 영업 지역의 주차장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사회간접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www.stuttgart.de/sde/menu/frame/top\\_11021\\_11041.htm](http://www.stuttgart.de/sde/menu/frame/top_11021_11041.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공청회 및 도시 지역계획 전시회 개최 (파리)
- ② 도심 상주인구 증가 추세 (동경)
- ③ 생활낙후지역 개선 위해 임대주택업체와 협정 체결 (파리)

### 도시환경

- ④ 재개발지역의 건물을 대상으로 열섬현상 방지대책 추진 (동경)
- ⑤ LPG 차량 등 '친환경 승용차' 혼잡통행료 면제 (런던)
- ⑥ 가정위험폐기물 수거 프로그램 시행 (미국: 델리웨어市)
- ⑦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검사 프로그램 실시 (오클랜드)

### 도시교통

- ⑧ 교통혼잡 완화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 검토 (미국: 뉴헤븐市)
- ⑨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위해 저비용의 서비스 개선안 마련 (뉴저지州: 트렌턴市)

### 사회복지

- ⑩ 학교 특성에 맞춰 주민대상 개방교육 실시 (일본: 오카야마縣)

### 행재정

- ⑪ 시민 편의 위해 '환경상담전화' 설치 (베른)
- ⑫ 공공사업 입찰에서 기술력 평가 확대 방침 (동경)
- 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도 랭킹' 발표 (일본: 전역)

### ①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공청회 및 도시지역 계획 전시회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2003년 2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국가-市 협약으로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공청회 및 도시지역계획(PLU) 전시회’를 각 區를 순회하며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市를 지속가능한 국제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도시계획·교통·주거 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균형개발, 실업대책, 사회주택, 광장 및 녹지 공간, 도시시설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향후 이를 토대로 세워지는 계획은 市도시지역계획(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에 포함될 예정이다.

([www.paris.fr/FR/Urbanisme/Actualites/ExpoPLU2003/ExpoPLU.htm](http://www.paris.fr/FR/Urbanisme/Actualites/ExpoPLU2003/ExpoPLU.htm))

### ② 도심 상주인구 증가 추세 (동경)

일본 東京都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동경칸티」가 東京 대도시권의 철도역 주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40km권의 주택지는 30% 정도 하락한 반면, 15km권내의 주택지는 보합세 또는 상승세를 보여 택지가격이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도심지의 아파트가 주택지의 인기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교외의 단독주택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도심지의 맨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지가가 폭등했던 버블기에는 도심으로부터 60km권까지 통근자가 거주하는 베드타운이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주택을 구하는 추세라, 통근권이 도심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신문, 2003. 5. 8)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③ 생활낙후지역 개선 위해 임대주택업체와 협정 체결 (파리)

프랑스 파리는 최근 중앙정부, 일드 프랑스 지역의회, 17개 사회 임대주택업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우선 사회 불평등이 현저한 단지에 적용된다. 협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일자리, 사회 안전, 위생, 치안, 삶의 틀 개선, 교육, 문화,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00~2006년 도시협약문서에 나타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절한 임대료를 제안해 건물 1층에는 경제 및 관련 활동들의 입지를 유도한다. 둘째,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사회연대 관련 조항들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과 진입을 촉진한다. 셋째, 주민의 필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관리인과 지역 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린 경영을 개선한다.

([www.paris.fr/fr/Urbanisme/Actualites/Convention/ConventionVille\\_Bailleurs.htm](http://www.paris.fr/fr/Urbanisme/Actualites/Convention/ConventionVille_Bailleurs.htm))

### ④ 재개발지역의 건물을 대상으로 열섬현상 방지대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그동안 공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 식재와 보수 포장 등 열섬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1년 4월부터 자연보호조례에 따라 1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 지상과 옥상의 일정비율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최근 都는 새로운 열섬대책의 정비지침을 마련해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지침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되는 건물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되어 매각되는 보류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적용된다. 정비지침으로, 에어컨 등에서 나오는 인공배열의 삭감, 건물의 단열성 향상, 옥상녹화, 대지녹화 등 4개 분야의 기준을 정했다. 옥상과 대지녹화의 경우, 옥상은 면적의 60% 이상, 부지는 45% 이상에 식재하거나 연못을 조성한다. (일본경제신문, 2003. 5. 7)

### 5 LPG 차량 등 ‘친환경 승용차’ 혼잡통행료 면제 (런던)

영국 런던市는 작년 2월부터 도심을 통과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료 5파운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들에게는 월 100 파운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승용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에는 승용차 판매대수가 무려 250만대에 이르렀으며, 올해에도 240만대의 승용차가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승용차의 도심 통과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친환경 승용차’에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 전용차와 휘발유 또는 LPG 겸용 승용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Metro, 2003. 4. 4)

### 6 가정위험폐기물 수거 프로그램 시행 (미국: 델라웨어市)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市는 주민들이 가정위험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정위험폐기물(HHW) 수거행사를 올해 5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市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왔고, 1998년부터 필라델피아市, 벅스(Bucks), 체스터(Chester), 몽고메리(Montgomery) 등 3개 카운티와 함께 가정위험폐기물 제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市의 HHW 프로그램 일정을 놓쳤을 경우, 4개 협력지역의 HHW 프로그램에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다.

HHW를 확인하는 방법은 HAZARDOUS, DANGER, WARNING, POISONOUS, TOXIC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상품라벨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올 6월에 열리는 행사에서는 컴퓨터 재활용 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휴대용 TV와 팩시밀리도 함께 수거하기로 했다.

([www.co.delaware.pa.us/recycle/hhw.html](http://www.co.delaware.pa.us/recycle/hhw.html))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7]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검사 프로그램 실시 (오클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오클랜드市 'Auckland Regional Council'은 주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매연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즉각 알려주는 「Drive-by emissions tests」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대기 오염 저감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원격탐사장치(remote sensor)를 이용해 주행중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CO,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양호', '정상', '불량'의 3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차량의 대기오염 유발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Auckland Regional Council'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정도를 점검하고, 어떤 차량에서 어떤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를 측정할 계획이다. 市는 향후 1개월간 14개 지점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이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www.scoop.co.nz/mason/stories/AK0304/S00038.htm](http://www.scoop.co.nz/mason/stories/AK0304/S00038.htm))

### 8] 교통혼잡 완화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 검토 (미국: 뉴헤븐市)

미국 코네티컷州 뉴헤븐市의 주변 대도시권 도시계획기관인 'South Western Regional Planning Agency'는 최근 교통혼잡 완화 계획 보고서 「Vision 20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로확장은 또 다른 교통수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정책을 향후 주요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에 중앙차로를 추가로 설치해 카풀 차량만 통행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이 중앙차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철도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주요 업무지역과 대중교통축을 연결하는 급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추가하며, 도심 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시책으로, 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2천대 이상의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보고서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도로, 철도, 버스시스템 개선 프로그램과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한 요금 인하 및 주차비 인상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www.stamfordadvocate.com/news/local/scn-sa-tsb5mar12,0,7615920.story?coll=stam-news-local-headlines](http://www.stamfordadvocate.com/news/local/scn-sa-tsb5mar12,0,7615920.story?coll=stam-news-local-headlines))

# 도시교통/사회복지

## 세계도시동향

### 9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위해 저비용의 서비스 개선안 마련 (뉴저지주: 트렌턴市)

미국 뉴저지주 대중교통운영기관인 'New Jersey Transit'은 버스 및 철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저비용의 서비스 개선안을 최근 마련했다. 개선안의 기본 전략은 승객과의 연계 강화, 승차권 구입의 편의성 증진, 쾌적한 승차 환경 조성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액권 사용기한의 연장, 둘째, 승차권 자동판매기 성능 개선을 통한 티켓 발매 처리속도 향상, 셋째, 웹 사이트를 통한 월정기권 판매, 넷째, 환승역 주차장 확충, 다섯째, 기존의 철도 이용정보 외에 버스 및 경전철 이용정보를 안내전화 서비스에 추가, 여섯째, 세차시간 단축을 통한 버스 및 열차의 미관 증진 등이다.

([www.northjersey.com/page.php?qstr=eXJpcnk3ZjcxN2Y3dnFIZUVFeXkyJmZnYmVsN2Y3dnFIZUVFeXk2MzY0OTY2](http://www.northjersey.com/page.php?qstr=eXJpcnk3ZjcxN2Y3dnFIZUVFeXkyJmZnYmVsN2Y3dnFIZUVFeXk2MzY0OTY2))

### ⑧ 학교 특성에 맞춰 주민대상 개방교육 실시 (일본: 오카야마縣)

일본 오카야마(岡山)縣 교육청 평생학습과는 縣내 18개 고등학교와 함께 5월부터 주민들에게 「고등학교 개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縣내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고등학교의 제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일반고등학교는 컴퓨터 입문과 활용, 홈페이지 작성법, 수제 생활용품 만들기 등, 농업고등학교는 원예, 식품가공, 목재가공, 채소밭 가꾸기 등, 공업고등학교는 옷감 염색 강좌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강좌는 총 19개이고, 강좌별 모집인원은 35명이다. 한 강좌당 강의 시간은 총 20시간이며, 참가비는 2천엔이다.

([www.pref.okayama.jp/kyoiku/syogai/yume/kokokaihou.htm](http://www.pref.okayama.jp/kyoiku/syogai/yume/kokokaihou.htm), 2003.4.16)

### 시민 편의 위해 ‘환경상담전화’ 설치 (베른)

스위스 베른市の 식품위생 및 환경보호 담당부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상담전화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시민들은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답변을 듣기까지 1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에 반해, 환경상담전화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생태학적인 일상생활 상식과 환경보호문제, 그리고 식품위생 등과 같이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다.

([www.bern.ch/go.cfm?FR=C&ID=80&NA=M](http://www.bern.ch/go.cfm?FR=C&ID=80&NA=M))

### 공공사업 입찰에서 기술력 평가 확대 방침 (동경)

일본 東京都는 공공사업 입찰에서 기술력 평가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입찰제도는 재무, 도시계획 등 공공사업 관련 8국(局)의 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건설비용 감축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2003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발주공사의 난이도를 기술곤란도에 따라 특A, A, B, C의 4단계로 구분, 난이도가 높은 특A와 A로 분류된 공사는 동종의 공사실적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한다. 철도의 고가설치공사 등 특A와 A로 분류되는 공사는 전체의 20% 정도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都是 실제 시공기술이 없는데도 공사를 수주해서 하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용 삭감과 품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일본경제신문, 2003. 4. 16)

###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도 랭킹」 발표 (일본 전역)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사용을 감시하고 있는 ‘전국 시민옴부즈만 연합회’는 최근 「정보공개도 랭킹」을 발표했다. 종합 1위는 5년 연속으로 미야기(宮城)가, 최하위는 나가사키(長崎)가 선정되었으며, 東京은 열람수수료 징수를 이유로 유일하게 실격 처리되었다.

이번 「정보공개도 랭킹」은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자체검사결과인 ‘工事成績評定文書’의 공개정도를 평가항목에 도입했다. 그 결과 東京, 岩手, 山梨, 長野가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고, 長崎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다른 주요 평가항목은 감사에 관한 정보공개였다. ‘경찰의 정기감사 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서류 등의 공개정도’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宮城, 神奈川, 岐阜, 福井, 大阪, 和歌山, 岡山, 沖繩가 공동 1위, 최하위는 靜岡와 高知가 차지했다.

(朝日新聞, 2003. 3. 27)